



스포츠 포커스

광주시 서구청 펜싱팀

자율 훈련 · 강한 조직력 '최고의 검객' 이어 간다

박종환

최은숙



사진 왼쪽부터 김동민·구교동·정근현·박종환선수, 최은숙·강영미·김미정 선수, 박광현 감독.

어텐션(차렷)-세루(인사)-에트부프레(준비됐나)-아레(시작)

지난 2일 광주시 서구 영주동 국민생활관 지하 광주시 펜싱 연습장, 서구청 소속 김미정(여·31)과 최은숙(여·22)이 피스트(코트) 중앙에서 서로를 매섭게 노려보며 연습시합을 준비하고 있다.

마스크와 장갑, 금속동의를 갖추고, 검을 맞댄 이들은 상대방을 매섭게 노려보다 순간적인 전진 스텝을 밟으며 상대 허점을 파고 든다.

이들 두 선수의 게임은 실전을 방불케 한다. 김미정이 한 참 선배지만 두 선수 모두 국가대표로 국내 최고의 여검객의 자리를 놓고 선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맞춤식 훈련... 능률 '쑥쑥'

칼 끝을 서로 맞대다가 김미정의 날카로운 공격을 최은숙이 피하며 반격을 한다. 전진과 후진 스텝을 밟으며 기회를 노리는 양 선수의 검이 찰나를 놓치지 않는다.

게임이 끝나고 마스크를 벗자 두 선수의 이마에선 붉은 땀방울이 흘러 내린다.

김미정은 최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009 국가대표 1위로 선발 됐다.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태극마크를 달았던 김미정은 올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금메달,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2002 부산아시안 게임 단체 금메달 등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메달을 따낸 최고의 여검객이다.

최은숙도 지난 2005년부터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1m69cm로 에베 선수로는 이상적인 신체조

건을 갖춘데다 큰 키에 비해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팀 동료 강영미(여·23)도 지난 2007년부터 줄곧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김나은(여·22) 역시 국가대표에 뽑히지는 않았지만 전국 정상급의 실력을 자랑한다.

이처럼 전국 최고의 여검객(4명)들과 남자선수(4명)들로 이뤄진 서구청 펜싱팀은 펜싱 에베 실업팀중 전국 최정상급의 실력을 자랑한다.

지난 1989년 12월 여자선수들로 창단한 서구청 펜싱팀은 1991년 현재의 박광현(43)감독이 부임하면서 부흥기를 맞는다. 남자팀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 2일부터 동계 훈련 돌입

창단됐다. 북성중-석산고-동아대-수산대-호남대 등을 거친 박 감독은 고3때 국가대표에 발탁돼 3년간 태극마크를 달았고, 88년~90년까지 다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하지만 박 감독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지는 못했다. 이러한 아쉬운 경험을 살려 선수들을 강하게 조련했고, 부임 1년만인 1992년부터 각종 전국대회 패권을 차지하며 서구청을 펜싱

에베 최강자로 등극시켰다.

남자부는 코치겸 선수인 구교동(36), 김동민(36), 정근현(27), 박종환(24)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여자부보다 늦게 출발해 아직은 전국 최정상급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듯하지만 언제든 우승을 따낼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

박 감독은 지난 2006년까지 감독겸 선수로 활동하며 은메달을 획득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었다.

지난 2002 세계펜싱선수권 개인2위, 단체전 3위, 2002 부산아시안게임 단체 3위 등 각종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던 구 코치는 선수 겸 코치로 활약

하고 있다.

제 89회 전국체육대회 후 풀 뜻 같은 휴가를 마치고 지난 2일 처음 소집된 선수들의 얼굴에서는 아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서구청만의 독특한 훈련방식이 있기 때문. 박 감독은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외로워야 한다"고 선수들을 채찍질 한다. 그렇다고 스파르타 식으로 몰아 부치지 않는다.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자발적 훈련을 한다. 그래서 선수들은 12시 훈련이면 대개 11시 30분쯤 모여 몸을 풀고 본 운동을 12시에 들어갈 정도로 훈련 시간이 낭비가 없다.

운동장을 뛰거나 스트레칭, 웨이트를 할 때도 무

김미정·최은숙 '태극마크'

조건은 없다. 개인 체력에 맞춘 운동을 한다.

김미정은 "우리 팀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알아서 자신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다"며 "강한 팀워크와 자율이 서구청팀의 최대 강점이 고 타 팀이 부러워 하는 점이다"고 말했다.

박 감독의 술선수법과 자율, 선수들의 운동에 대한 집념과 열성, 여기에 전주인 서구청장의 헌신적인 지원이 보태져 서구청 팀은 전국최강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특히 전 청장은 선수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합숙소(아파트)를 내년에 마련해주는 등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09년에도 정상에 군림하기 위한 서구청 선수들의 검이 겨울의 찬 공기를 가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함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조은의료기 북구 용두동 희광병원앞 복지용구,정동혈체어,의수족,의료기기,보청기 노인장기요양보험관리 ☎(062)362-5579	목포할어복집 동구 수기동 서울월드호텔건너 할어복전문점 주차장완비 대표 지정 애 ☎(062)223-8549	동원샘물한라대리점 북구 중흥동 무등재삼거리앞맞은편 정수기,냉,온수기 판매및 임대전문 대표 김천주 ☎(062)363-0607	상지공인증개사 서구 금호동 금호1동사무소 옆 대출일선,분양이,파트,상가,단독,토지,공공경매대행 대표 임경심 ☎(062)373-0203	선진공인증개사 남구 진월동 빅마트 뒤 아파트,단독주택,토지,임대,전원주택,공공경매대행 대표 신정자 ☎(062)674-2001	전리도맛집 동구 학동 그랑프리호텔 옆 병어조림,길치조림,생선조림 전문점 대표 오혜숙 ☎(062)236-0155	(주)두임동현대자동차정비공업사 북구 두암동 미라보@와주공@중간 엔진,히체,경정비,판금,도색,열처리 24시간 견인차주어대기,관급부직원모집,정리주어대 ☎(062)265-4700
남성특보(금)기술사랑방이관 남구 진월동 새터병원 육교건너 귀동국사나,이발부정력,전자용기(취미) 대표 신종수 ☎(016)625-9353	한국기담철학연구원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북부소방서 뒷편 시주학(지연,명리,해천지,통보예의한,주희)강의 철학연구원생 수시모집 ☎(062)263-0208	히딩크모델 북구 중흥동 광주역맞은편 삼성생명 뒷편 각 객실마다 관리실치 및 최신시설완비 청소,아주머니구함(시간조절기능) ☎(062)528-0071-2	그레이스양복점 서구 상무지구 CGV빌딩 프리아미아몰B/D 명품스타일 맞춤정장 대표 전창호 ☎(062)383-8887	해물나라 북구 유동 삼성병원 옆 백반,갈치조림,병어조림,명태탕,해물탕 전통 요리의 명가 ☎(062)222-0289	약산축협소기든 광산구 신기동 육교 앞 축협소전문요리점 청동오리,주물럭,전골 대표 정호 ☎(062)954-9233	광남기업 북구 두암동 현대자동차공업사 옆 샷,유리,김해,도회,가을제,전축,리,계,인,및,잡,수,리,전문 대표 이경규 ☎(062)263-0036
옥천카서비스 남구 진월동대덕@뒷편 정기검사,타이어교체,에어컨점검,기타서비스 대표 조종상 ☎(062)676-0316	한국자연건강요법연구회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북부소방서 뒷편 수조침,동,부행법,경력치사(전신,얼굴,발) 회원수시모집 ☎(010)2296-9395	첨단금학식당 광산구 월계동 농산물품질 관리원 옆 꽃게찜,탕전문 서대희무침,북지회무침전문 참조기탕,동태탕전문 ☎(062)973-5977	남원추어탕 광산구 쌍암동 쌍암공원 정문 앞 추어탕(5,000원) 매생이탕,해물모듬탕 대표 김백협 ☎(062)972-3824	화이트크리닝 광주광역시 수거,세탁,배달 전문 ☎(062)575-8239	미래미용직업전문학교 광산구 신기동 주공@건너서경B/D5층 교육과정(국비무료교육)사업주,위탁훈련 고용촉진훈련(지역실업자,새내맞춤훈련)등수업 ☎(062)956-6666	다운유치원 남구 봉선동 남부경찰서입구거리 공주은행 옆 유치부4~7세 어린이 수시모집 종일반운영,차량운행 ☎(062)651-0579